http://dx.doi.org/10.16874/jslckc.2024..71.011

우밍이(吳明益)의 『도둑맞은 자전거(單車失竊記)』와 타이완 역사 재구성*

조영현**

목 차

1. 머리말
2. 신역사주의
3. 가족과 자전거
4. 타이완 원주민의 전쟁 기억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타이완 작가 우밍이(吳明益) 작품 중 『도둑맞은 자전거(單車失竊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신역사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이 작품은 서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실종과 함께 사라진 자전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20세기 타이완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작품은 먼저 자전거와 얽힌 가족들의 일화들을 소개하고, 나아가 태평양전쟁사, 타이완의 자전거 발전사, 동물원사, 나비 공예사 등을 기술한다. 특히, 전쟁사를 기술하면서, 작가는 그동안 잊혀졌던 타이완 원주민의 '타카사고 의용대'를 타이완 역사로 소환한다. 본 논문은 작품의 기본적인 사사를 이루고 있는 가족사와 작가의 뛰어난 역량이 구현된 개인의 전쟁 기억이라는 두 주제가 '신역사주의' 인식하에서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된 사례들을 고찰한다.

* 이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2023-0168).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www.kci.go.kr

키워드: 우밍이, 도둑맞은 자전거, 신역사주의, 중층 기술, 사이노폰, 매직 리얼리즘, 타이완성, 미시사

1. 머리말

대륙의 중국 정부가 타이완과의 양안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대 담론을 내세우며, 외교・정치・경제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타이완을 봉쇄・압박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군사적 긴장까지 조성하며 타이완의 총통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한다는 언론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때리지 않는다(中國人不打中國人)'[1]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상황이지만,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정책 노선이 대륙의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것처럼, 타이완 사회는 38년 동안 지속되었던 계엄령이 1987년에 해제된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탈식민과 과거사 청산(특히, '2・28 사건'이나 '백색테러')에 따른 사회 민주화 흐름, 本省人과 外省人이라는 에스닉 그룹(族群) 간의 대립에 대한 재평가, 타이완 '正名運動'과 '타이완 독립파'의 대두와 함께 타이완 본토성(Nativeness) 추구, 타이완 원주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原住民正名運動')에 이어진 생태의식 고조와 반핵운동 등은 현재 타이완 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런 역동적인 변화에 기반해, 타이완의 문화와 문학은 타이완성(台灣性 Taiwaneseness)[2] 추

1) 이 구호는 중일전쟁 시기에 일치단결하여 항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기된 것이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告台湾同胞書』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2019년 1월 2일)에서 다시 언급하며, 양안 관계에서의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구호로 다시 소환되기도 했다.

2) 타이완성을 한 마디로 예단할 수는 없다. 탈중국화를 기본 전제로, 타이완 본토성을 추구하는 흐름에서 출발했겠지만, 타이완 사회는 다양한 에스닉 그룹이 교섭・경합하는 혼종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이완성에는 타이완 본토 의식뿐만 아니라, 중국성, 전지구화 흐름 속에서의 타이완 위치와 외래 문화적 요소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www.kci.go.kr

구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타이완의 문화 지형에서 배출된 작가로서, 우리는 우밍이(吳明益, 1971年~)를 만날 수 있다.[3]

國立東華大學의 華文文學系(Department of Sinophone Literatures)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우밍이는 소설과 산문집뿐만 아니라 학술 저서 등 십 여종의 저작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하여, 생태학적 담론을 바탕으로 한 '자연 글쓰기(自然書寫, Nature Writing)'[4]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우밍이는 "곤충학, 생물학, 생태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다재다능한 예술가, 사진작가, 환경 운동가"[5]로 불리며, 타이완 문단을 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하고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은 우밍이 작품 중에서, 타이완 사회의 격류 속에서 대두한 타이완성의 혼종적 면모를 과거 역사의 재발굴이라는 방식으로 그려내고 있

충돌하며 경합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가장 대만적인 작가'로 불리는 그에게, 이 소설이 2018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 후보에 올랐을 때 주최 측이 그의 국적을 '대만, 중국Taiwan, China'으로 바꾼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즉각 이것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일임을 공개적으로 항의했고, 국적 표기가 '대만Taiwan'으로 되돌려졌다." 우밍이, 허유영 譯,『도둑맞은 자전거』(파주: 김영사, 2023), '옮긴이의 말' 467~468쪽. 이후 작품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한다.

4) 산문집『나비탐미기(迷蝶誌)』나 장편소설『복안인(複眼人)』(2011) 같은 작품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다. 류커샹(劉克襄)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글쓰기」에서『나비탐미기』는 "대만 생태 문학 중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우밍이, 허유영 譯,『나비탐미기』(서울: 가디언, 2016), 202쪽.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우밍이 작품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이영현의 「기후변화, 플라스틱, 몸: 2021년과『복안을 가진 남자』를 중심으로」(『문학과환경』 제20권 4호, 2021)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어 번역본『복안인』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5) Lin-chin Tsai, "Ecological Redistribution and Historical Sustainability in Wu Ming-yi's Two Novels", *Tamkang Review* 50.1 (December 2019), p29.

6)『수면의 항로(睡眠的航線)』(2007)는 일어로,『복안인』은 영어를 비롯해 14개국 언어로, 도둑맞은 자전거(單車失竊記)』(2015) 영어 등 8개국 언어로,『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天橋上的魔術師)』(2011) 한국어・일어・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수많은 수상 경력과 함께 호평을 받고 있다.

www.kci.go.kr

는『도둑맞은 자전거(單車失竊記)』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작품은 화자 '나'(程先生, 小程)가 아버지(三郎)의 실종과 함께 사라진 자전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기본적인 서사를 이루고 있지만, 자전거를 매개로 20세기 타이완 역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사, 대만사, 대만의 자전거 발전사, 동물원사, 나비 공예사 등에 관한 이야기"(459쪽)라는 작가의 말처럼, 타이완의 다채로운 역사들 속에서,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포화에 쓰러져 간 개인들과 그 가족의 아픔, 동·식물의 수난과 공감의 생태 의식, 사회 변천사와 자전거의 의미, 일본인·원주민·본성인·외성인·카렌족(미얀마 소수민족)이 공통으로 겪는 아픔과 화해,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서의 전쟁사와 개인이 겪은 전쟁 기억, 작품에 직접적으로 기술된 작가 혹은 예술가의 창작 의식, 다양한 문화 혹은 텍스트의 수용 양상 등등 한 편의 논문으로 다룰 수 없는 소주제들이 한 작품 속에 담겨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고려해, 작품의 기본적인 사사를 이루고 있는 자전거와 가족, 작가의 뛰어난 역량이 구현된 개인의 전쟁 기억이라는 두 주제가 '신역사주의' 인식하에서 펼쳐지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역사주의

먼저, 작품의 독특한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런 소제목 없이 서사가 전개되는 도입부에 이어, 1에서 9장까지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서사가 펼쳐지고, 10장에서 앞의 서사 소재들이 만나는 결론 성격의 글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각 장들 사이에, 타이완에서의 자전거 역사를 보여주는 사료적 성격에 기반해, 소설의 서사들을 뒷받침하는 시대적 배경과 문화환경에 대한 주석 혹은 보충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철마지(鐵馬誌, Bike Notes)'——일부 내용은 작품의 서사 전개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는—— 7개 장이 삽입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작가 후기와 일반적인 소설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참고문헌'[7]

www.kci.go.kr

이 제시되어 있다. 즉, 이 소설은 외형적으로 역사 연구 저서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저서의 서문 같은 작품의 도입부는 의미심장하다. 다음은 소설의 첫 문장과 1장의 첫 단락이다.

> 당신에게 그날 새벽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 같다. **이야기는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는 법이니까.**(9쪽, 강조는 인용자)[8]

>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자전거에서 시작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도둑맞은 자전거에서 시작된다. "**철마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놨어.**" 어머니는 툭하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신역사주의자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는 위대한 인물도, 영웅도, 진주만 폭격도 없다. 어머니가 기억하는 건 자전거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잡다한 이야기뿐이다.** 어머니가 대만 방언으로 '운명'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 언어에 아직도 '운'을 '명'보다 앞세우는 서민의 신념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곤 한다. (15쪽, 강조는 인용자)[9]

첫 번째 인용문에서,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생겨난다는 전제는 과거에 대한 '재현'(representation)이 투명한 유리를 통해 보듯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에 부여된

---

7) 아쉽게도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 참고문헌과 王德威의 작품 분석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참고문헌에 제시된 서목들은 대체로 자전거와 전쟁 관련 사료들이고, 타이완 사회사, 동물 관련 사료들도 일부 있다.

8) 원문: "我得爲你描述一下那天的清晨, 因爲每次新的描述都有新的意義。" 吳明益, 『單車失竊記』, 台北: 麥田, 2022, 5쪽. 이후 원문 인용은 이 책의 쪽수만 표기한다. 번역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해 능원동사 '得'의 기능에 변형을 가했겠지만, '그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을 기술해야만 해' 정도의 의미로, 곧이어 기술할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

9) 이 인용문의 첫 문장(我想說的故事, 無論如何都得從脚踏車說起。10쪽)도 앞에서 지적한 능원동사 '得'의 기능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을 바꾸어 놨다는 표현(鐵馬影響著咱一家伙的運命。10쪽)도 다소 과한 번역이다. 3장에서 논하겠지만, 작품에서 서술하는 각 자전거 분실 사건 모두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www.kci.go.kr

의미란 “원래부터 과거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부(자)에 의해 과거에 부여”된 것이고, 따라서 “역사는 역사가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과거에 대한 일종의 구성물”이며, “‘역사’(history)란 사실상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역사들’(hisroeis)”이다.[10]

그리고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화자가 가족사 서술에 자전거를 빼놓을 수 없다는 미시사의 관점[11]을 천명하며, ‘신역사주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창작 의도, 작품 구상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신역사주의[12]는 1980년대 “신비평과 해체비평에 이르는 여러 비평 경향들을 원용하여 낡고 고착된 ‘역사’의 개념을 다시 꺼내 재조정하고 재조합해 보려는 일종의 역사 새로보기 작업”[13]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신역사주의는 역사 서술을 일종의 서사 또는 이야기로서 인식”하고, “역사 서술도 글쓴이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관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14] 문학연구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

10) 키스 젠킨스,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서울: 혜안, 2002), 34・43・69쪽.

11) “나아가 신역사주의자들은 통합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과 모순에 더 흥미를 가지고 중심부뿐 아니라 주변부에도 관심을 가지며 완성된 미학을 추구하기보다 이런 질서의 생산을 위한 이념적이고 본질적인 토대를 탐구한다. …(중략)… 따라서 **이들의 관심사는 正史나 正典보다 꿈, 축제, 마녀재판, 性지침서, 일기와 자서전, 복식사, 역병기, 출생 및 사망 기록, 이론 지침서, 집회, 지도 제작, 방송매체, 대중음악, 광기의 역사 등 작고 사소하고 주변적인 미시사적 서사에 관심을 가진다.**”(강조는 인용자) 정정호, 「미국의 “신역사주의” 비평: 담론으로서 “역사”의 귀환」, 『문예운동』, 통권 제142호(2019.5), 143~144쪽.

12) “신역사주의(New Historical)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출발한 것으로” 간주하며, “영국에서 영국 특유의 문화역사 전통의 맥락에서 신역사주의를 전개”한 이론 경향은 ‘문화유물론(Cultural Materialism)’이라 하고, 호주에서의 ‘네오역사주의’도 신역사주의의 범주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 김혜니, 『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푸른사상사, 2005, 447쪽.

13)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1997, 333쪽. ‘신역사주의’는 문학 혹은 문화 영역에서 비평 이론으로 등장했지만, 역사학계에도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다. 미시사 등을 중시하며 새로운 역사 읽기를 시도하는 흐름을 조한욱은 ‘신문화사’라고 개괄한다.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2020, 11~19쪽.

14)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 『비평이론의 모든 것』, 서울: 앨피, 2014, 596쪽. ‘메타역사’

www.kci.go.kr

> …(전략)…신역사주의는 기존의 전통적 문학연구가 그 방법론상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유해온 관념적 형식주의적 본질주의적 경향을 비판한다. 그리고 실증적 역사연구의 전제가 되는 정태적이고 단선적인 역사관에 도전하며, 문학적 전경/역사적 배경, 텍스트/컨텍스트, 문학적 생산/여타의 사회적 생산 등의 위계적인 이분법을 부정한다. 또한 다른 비평경향들의 방법론적 가정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법론적 가정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시도하며, 권력과 문화적 형식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 '비평적 실천'이라고 하겠다.[15]

신역사주의의 분석 이론으로는 미셸 푸코의 권력이론에 영향을 받은 '강화(consolidation)—전복(subversion)—봉쇄(containment)'[16]와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인류학적 기술 방법인 '중층 기술'(thick description)[17]이

를 주장하는 헤이든 화이트에 따르면, "역사가는 어떤 사건은 이야기에 포함시키고, 다른 사건은 배제함으로써 또는 어떤 사건은 강조하고 다른 사건은 그에 종속시킴으로써 이야기를 구성한다. 배제・종속・강조의 이 과정은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수행된다. 다시 말하면, 역사가는 그의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메타역사』, 서울: 文學과知性社, 1991, 17쪽.

15) 영미문학연구회 편, 『영미문학의 길잡이 2: 미국문학과 비평이론』, 파주: ㈜창비, 2007. 467~468쪽.

16) '강화'는 "전형적으로 지배적인 질서가 그 자체를 영속화하려는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을 말하고, '전복'은 "그런 질서의 전복을 뜻하며", '봉쇄'는 "외양상 전복적인 압력들의 봉쇄를 의미한다." 조너선 돌리모어, 「셰익스피어, 문화적 유물론과 신역사주의」, 프랭크 렌트리키아 외, 김옥수 역, 『신역사주의론』, 서울: 한신문화사, 2002, 88쪽. 스티븐 그린블라트에 따르면, "지배권력은 자신의 통제력의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을 전복하려는 세력을 어느 정도 부단히 재생산한다는 것, 따라서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은 애초부터 체제에 의해 그 전복의 능력이 봉쇄되어 있다." 이명재, 앞의 책, 338쪽. 참고로, 신역사주의("이데올로기 강화의 과정을 강조")와 영국의 문화유물론("저항을 중요시")은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김옥수, 「신역사주의와 문화적 유물론」, 프랭크 렌트리키아 외. 앞의 책, 353쪽.

17) 클리퍼드 기어츠는 『문화의 해석』(문옥표 역, 서울: 까치글방, 1999)에서 윙크와 모로코 고원지대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을 예로 들며, 이 개념을 상세히 설명한다. 14~19쪽 참조. '중층 기술'은 흔히 '두터운 묘사', '치밀한 묘사', '촘촘한 묘사' 혹은 '세밀한 기술'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www.kci.go.kr

종종 언급된다. 이 중 '중층 기술'은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해독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통해 그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의미의 교환체계를 파악하는 방법"[18]인데, 『도둑맞은 자전거』에서 아주 독특하게 운용되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신역사주의는 비평 이론으로 출발한 것이지, 문학 창작 방법에 관한 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도둑맞은 자전거』가 비록 신역사주의적 관점을 내세우지만, 신역사주의 자체의 이론적 정합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역사주의적 관점을 작품 창작 방법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거대 서사에 대한 불신의 시대에, 복수의 역사들에 대한 작가적 고민에서 비롯된 새로운 역사 읽기를 작가 나름대로 실천한 사례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19]

다음은 『도둑맞은 자전거』에서 신역사주의를 응용하는 사례이다. 작품은 앞에서 인용한 첫 구절에 이어, 평화롭지만 왠지 불안해 보이는 바닷가 농촌 마을을 화폭에 담듯이 그려내고 있다. 생계를 위해 바쁜 어른들을 대신해 참새를 쫓는 아이들은 날개부채새가 벼 이삭을 쪼아 먹어도, 이상하게 우르릉하

18) 최호근, 「역사주의와 신역사주의」, 『韓國史學史學報』 8호(2003.9), 96쪽. 보충하면, "출산 의례나 제례 의식, 놀이, 형법, 예술 작품, 저작권법 등처럼 이미 주어진 문화적 생산물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뜻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정한 문화적 생산물이 해당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러한 의미를 문화적 생산물에 부여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의 규칙, 세계 이해 방식 등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두터운 묘사는 사실들이 아닌 의미를 탐색한다.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문화적 생산물들의 목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가족 내 역학 관계의 역사, 여가 활동의 역사, 성행위의 역사, 양육법의 역사 등 역사의 개인적 측면에 주목한다. 실제로 전통적 역사 연구가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역사와는 별 상관이 없는 주관적인 것이라며 무시하거나 주변화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신역사주의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역사 탐구의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동안 누락되었던 부분을 보충하려고 한다." 로이스 타이슨, 앞의 책, 600~601쪽.

19) 스티븐 그린블라트는 「문화 시학을 향해」에서, 신역사주의를 "하나의 원칙으로서보다 하나의 실천으로" 간주한다. 프랭크 렌트리키아 외, 앞의 책, 28쪽. '원칙'의 영어 원문은 'doctrine'이다. Harold Aram Veeser, ed, *The New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89, 1쪽 참조.

www.kci.go.kr

는 소리가 들려도 그저 잠에 빠져든다.

> 얼마나 지났을까, 보조개 아이가 눈을 뜨니 공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잠에서 깨자 머리가 무겁고 말을 해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가 논바닥의 풀벌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할 뿐 귓속으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 일어나는데 옆에 쓰러져 있는 허수아비가 발에 챘다. 논두렁으로 올라가 보니 푸르던 지평선이 군데군데 삽으로 퍼낸 듯 움푹 파여 있고 납처럼 시커먼 구름이 하늘가를 뒤덮고 있었다. '벌써 밤인가?' 아이는 생각했다. 그럴 리 없다. 잠깐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친구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중략)… 다른 여자아이가 있는 논에 가보려 했지만 낯설고 험악하게 변해버린 들판이 무서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났지만 아이는 무작정 논두렁과 논두렁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다. …(중략)…
> '마을로 돌아가. 어서 빨리.'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외쳤다. 엄마가 한 말이었다. …(중략)…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넘어지고 말았다. 버둥대며 몸을 일으키는데 눈앞에 까만 자전차가 보였다. 자전차에 발이 걸려 넘어진 모양이었다. 아이는 자전차를 탄 일본 순사가 사람을 쫓는 걸 본 적이 있었다. 아주 빨랐다. 그걸 타고 가면 마을까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 "어서 돌아가!" 시커멓게 타버린 허수아비가 말했다.
> "어서 돌아가!" 하늘을 나는 황로가 말했다.
> "어서 돌아가!" 고랑에 흐르는 물이 말했다. (12~13쪽)

급박한 상황에 아이는 동물적 감각으로 "'산카쿠노리', 즉 삼각 타기라고 불리는 방법"(14쪽)을 이용해 철마 같은 자전거를 처음 탔다. 하늘에서는 검은 비, "물체가 불에 타면서 생긴 미세한 알갱이가 모인 검은 안개"(14쪽)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 도입부는 보조개 아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공포에 쫓겨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던 일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기어츠의 말을 빌리면, 어린아이 눈에 비친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현상 기술(thin description)'[20]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은 이후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이

www.kci.go.kr

사건의 의미 구조를 보여준다. 보조개 아이가 화자의 어머니였다는 것, 당시 일제 식민지 타이완에서 일본 순사 정도는 되어야지 자전거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 일반적인 타이완 역사에서는 묻혔던 미군의 오폭 사건 소환과 슬그머니 다가온 태평양전쟁 등이 도입부에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다가, 작품의 결말(10장)에서, 외삼촌의 해석을 덧붙인다.

> "그래. 사실 미국 비행기가 우리 마을을 폭격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그때는 폭격의 정확도가 높지 않았잖아. 그중 한 대가 우리 마을 근처 들판에다 포탄을 떨어뜨리고는 비행기까지 추락했어. 결국 논 가장자리로 허수아비를 흔들러 갔던 아이 셋이 폭격을 맞고 죽었어." …(중략)… "천만다행으로 네 엄마는 죽지 않았어. 논바닥에서 잠이 들었었나 봐. 그래서 공습이 벌어진 것도 몰랐던 거지. 깨어나 보니 다른 아이들이 보이지 않더래. 논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보니 논두렁에 공명차가 한 대 있었는데 급한 마음에 누구 건지도 모르는 그 공명차를 타고 집에 돌아온 거야. 참 이상하지. 그때 네 엄마는 공명차를 탈 줄 몰랐어. 게다가 그 공명차는 아주 컸단 말이지. …(후략)…" (406쪽)

느닷없는 미군의 공습에 허수아비를 흔들며 새를 쫓던 아이 세 명이 사망한 사건이 당시 타이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외삼촌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진 서술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탄 그 자전거는 공습에 죽은 일본 순사의 자전거였고, 평생 자전거 한 대 가져 보는 게 소망이었던 외할아버지가 그 일로 결국 젊은 나이에 죽음에 내몰렸다는 점을

20) "여기에서 말하는 현상 기술과 중층 기술 사이에는 위계적으로 연결된 여러 층위의 의미 구조가 존재하며, 앞에서 말한 경련을 일으키는 자, 윙크하는 자, 거짓 윙크하는 자, 흉내내는 자, 흉내를 연습하는 자나 모두가 이 의미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의미를 부여받으며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눈꺼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해주는 의미구조 없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의 문화적 범주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눈의 경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윙크가 눈의 경련만이 아닌 것을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의 경련이 윙크가 아닌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문화적 의미 구조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클리퍼드 기어츠, 앞의 책, 16쪽.

www.kci.go.kr

언급하고 있다. 화자 세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미국의 폭격과 희생, 부모 세대가 그러한 폭력과 희생을 받아들인 문화적 의미구조를 보여주는 이러한 서술들은 한 사건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해석의 의미망을 보여주는 '중층 기술'을 응용하고 있다.[21] 또한, 사실과 환상을 섞으며 아픈 현실을 담아내는 매직 리얼리즘 기법으로 묘사된 도입부는 사건 자체가 독자의 해석을 요구하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신역사주의식의 물음——"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가?"와 "그러한 해석이 해석자에 관하여 말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22]——을 상기시킨다.

3. 가족과 자전거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군의 오폭 속에서 살아남은 '신역사주의자' 어머니와 자전거에 관한 일화(anecdote)[23]가 소설의 출발점이다. 자전거로 인해 일가족 운명이 바뀌었다는 어머니의 넋두리 속에서, "'운'을 '명'보다 앞세우는 서민의 신념"을 강조한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자전거 마니아로서의 화자는 자전거라는 단어의 유래를 언급하며, "자전거라는 단어만큼은 36

21) "기어츠는 문화를 다양한 상징체계의 가닥들로 엮인 복잡한 '의미의 그물망'으로 보고, 이러한 문화분석의 방법론으로서 통일되고 일관된 법칙의 발견이 아닌, 마치 문학비평가가 문학텍스트의 미세한 세부사항들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의 해석적 서술을 제시"하고, '중층 기술'이라고 명명했다. 영미문학연구회 편, 앞의 책, 472쪽.

22)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 앞의 책, 589쪽.

23) "신역사주의에 의하면, '두터운 묘사'에 동원된 일화는 목적론적이며 시작—중간—끝이 있는 일관된 내러티브 형식의 전통적 역사기술과는 달리 역사와 문화의 우연성(contingency)과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신역사주의자들은 흔히 신역사주의 비평이 기이하고 색다른 일화로 시작하는 것은 역사에 관한 새로운 설명을 자극하고 일종의 대안적인 반역사(counterhistories)를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동원된 일화가 자의적으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적절한 연관성을 담보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영미문학연구회 편, 앞의 책, 472쪽.

www.kci.go.kr

종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건대 자전거라는 단어는 지역성을 갖고 있다.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본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철마나 공명차라 부르는 사람은 민남어 사용자일 것이며, 단차나 자행차라고 부른다면 중국 남부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은 이 단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지역을 식별할 수 없다.
> 나는 어머니가 민남어로 공명차와 철마를 말할 때의 발음을 제일 좋아한다. (17쪽)

이는 자전거라는 말의 기표를 통해, 과거 타이완은 지금과 달리 확연히 다른 언어・문화적 정체성들이 만나고 충돌하는 혼종성의 공간이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화자는 어머니의 발음을 통해 자신의 신분적 정체성이 本省人에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사실, 漢族의 '중국어(Chinese)'와 타이완 지역의 다양한 언어들의 충돌・교섭, 나아가 대륙 중국 중심주의에 저항을 표출하는 사이노폰 관련 담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묘사는 최근 타이완 문학에서 종종 볼 수 있다.[24] 따라서 『도둑맞은 자전거』도 사이노폰 타이완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의 치유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21세기 타이완이라는 화자의 위치 때

24) "'중국어(Chinese)'라는 단어는, 언어를 국적 및 에스닉 고유성과 동치시키도록 오용되어 왔고, 관변의 단일어주의(official monolingualism)는 언어적 이질성을 무시하고 억압"해 왔으며, "사이노폰 타이완 문학이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런 특정한, 현지적이고, 다양한 언어・문화의 혼합과 충돌 하에서 이루어진 산물이고, 그 때문에 중국 문학과 문화의 정통성에 대해 질의의 힘을 갖게 된다. 사이노폰 연구는 따라서 중국 연구 사이에서 모종의 장력을 형성하면서, 중국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그 현지성과 독특성을 통해 자신을 구축한다." 스수메이의 「사이노폰의 개념」(『中國現代文學』 第95號(2020.10), 457~458쪽)과 『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臺北: 聯經, 2017, 135쪽) 참조. 본 필자는 이전에 사이노폰 타이완 문학에 대해 논한 바가 있어, 여기서 상세한 서술은 생략한다. 「리앙(李昂)의 『미로의 정원(迷園)』과 反 디아스포라」(『中國語文論譯叢刊』 第48輯, 2021.1)과 「샤만 란보안의 『바다의 순례자』와 원주민성」(『中國語文論譯叢刊』 第52輯, 2023.1) 참조.

www.kci.go.kr

문에, 그 충돌 양상이 다소 무덤덤하게, 그리고 화해를 추구하는 모습이 강하게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은 자전거와 가족사를 어떻게 기술하는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독자를 당혹게 하는 화자의 입장이다.

> 자전거라는 개체의 독특함도 날 매료했다. 자전거는 만들어진 시대에 따라 그 시대만의 것이 된다. 자전거를 기준으로 역사서를 집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역사서 제일 앞에는 대표적인 자전거 기종을 기원으로 삼아 시대를 구분한 연표가 실릴 것이다. 예를 들면 후지패왕호 원년, 케넷베스트호 원년, 행복표 내장기어3단 로드바이크 원년 등. 나를 유물사관론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자전거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은 진화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17~18쪽)[25]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화자가 갑자기 자신은 유물사관론자라고 불러도 좋다는 기술은 앞의 신역사주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람 베서(H. Aram Veeser)가 제시한 신역사주의의 기본 가정 5가지 중 첫 번째가 "모든 표현적 행위는 유물론적 실천의 그물망에 내재되어 있다"[26]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반된 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문화유물론(Cultural Materialism)'[27]을 염두

25) 원문: 我也著迷於鐵馬個體的獨特性, 意思就是在某個時代被打造, 也只屬於那個時代的鐵馬。我相信有一天有人能編出一本鐵馬史, 上頭都用代表性的車種來紀元, 比方說富士霸王號元年、堅耐度號元年、幸福牌內三飛跑車元年。從這點來看, 你可以說我是個唯物史觀論者：有鐵馬的世界跟沒有鐵馬的世界, 演化自不相同。(12쪽) 원문을 보면, 자전거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 시대별 대표성을 띠는 자전거 기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연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는 제한적 조건에서 화자 자신을 유물사관론자라고 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6) Harold Aram Veeser, ed, *The New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89, p. xi. 이명재, 『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서울: 집문당, 19997), 336쪽.

27) 신역사주의의 영국식 변형인 '문화유물론'은 "기존의 고전 해석이 지닌 정치적 효과를 전복시킬 대항적 해석의 생산과 문학과 관련된 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분석에 치중"하고, "생산관계간의 모순이라든가 계급투쟁 등의 명제들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거부 쪽으로 나아"간 신역사주의에 비해, "핵심적인 명제들을 유지하되 문화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재구성할 것을 내세"우며, "훨씬 역사적이며 구체적이며 마르크스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명재, 앞의 책, 342쪽.

www.kci.go.kr

에 둔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게다가 화자가 제시하는 가족사 중에는 어머니의 기억에 의존한 것들이 많고, 작품내 여러 서사들 중에서 나름 비중 있는 서사들은 미시사(Microhistory)[28]에 해당한다.

다음은 가족의 운명에 끼어들었던 자전거와 가족에 대한 미시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이야기는 외할아버지가 태어났던 메이지 38년(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러・일 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야심, 대지진으로 1만 9천 명이 사망한 인도, 쑨원의 동맹회 창설, 대영제국의 전함 개량, 매독 병원체 발견을 언급하며, 그해 타이난의 명의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대만일일신보』 기사를 병치한다.(18~19쪽)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태어나던 해에, “벤츠 한 대, 아니 집 한 채와 맞먹는 큰 재산”(19~20쪽)이었던 자전거를 분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에, 평생 부러워한다. 1945년 미군 폭격 때 딸이 도망치며 타고 온 자전거 때문에 일본 순사에게 물고문을 당하지만,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다, 결국 급사한다. “중요한 임무를 끝마친 사람처럼 말이야. 네 엄마는 늘 자기 탓이라고 자책했지만, 그게 아니야. 운명이었어.”(407쪽) 외삼촌은 이렇게 숙명론으로 이해하지만, 일제 식민지기 타이완 농민이 처했던 부조리한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양복 짓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첫 번째 자전거 분실은 다섯째 누나와 관련이 있다. 내리 딸 다섯을 낳자 아버지는 다섯 번째를 먼 친척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늘 운명에 순응하던 어머니가 유일하게 그 일만은 완강히 반대”(21쪽)했다. 1년 뒤 형이 태어나고, 가난에 찌든 아버지는 다섯째 딸을 안고 타이

28) “미시사에서 대상으로 삼는 개인은 역사의 그늘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갔던 인물들로서, 그들의 삶을 복원시키려는 이유는 그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의 삶을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 상층의 지배문화와 하층의 민중문화 사이의 간극을 밝히며, 그 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절충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즉, 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이되, 그것 자체에서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趙漢旭, 「미시사의 이론과 실제」, 김준형 외, 『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164~165쪽. 물론 미시사는 신역사주의의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이다. 앞의 각주 11 참조.

www.kci.go.kr

베이역으로 향했다.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간 덕분에 어머니는 20여 분을 단축하고 딸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십일 분의 시간과 아버지의 낮게 숙인 시선은 우리 가족이 당시에 얼마나 곤궁하고 처량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사랑의 증거”였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었고, 그 바람에 작은 양복점의 몇 달 수입과 맞먹는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24~25쪽)

두 번째 자전거 분실은 형과 관련이 있다. “부모님은 형이 열심히 공부해서 ‘펜대 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랐지만 형은 한사코 그 기대를 저버렸다.”(205쪽) 아버지는 형이 고등학교 입시에 재수로 합격했을 때, 합격자 명단을 보러 갔다가 자전거를 두고 왔다. “입학식 전에 아버지는 상가 악기상에 가서 형에게 통기타를 사주었고, 그 때문에 아버지는 두 달이 더 지나서야 장물 시장의 중고 자전거 값을 모을 수 있었다.”(210쪽) 그러나 기타 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였던 형은 자신의 꿈을 찾아 가족을 떠난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일 년 뒤 형도 사라졌다. 하지만 형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일본인 연주가에게 기타를 배우러 일본에 간 것이었다.”(208쪽)

세 번째 자전거 분실은 화자와 관련이 있다. 화자가 여덟 살 때 열병으로 소아과에 갔다가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룽산사에 가서 향로에 향을 사른 뒤(연못 앞에서도 엎드려 절했는데 연못 안에도 신명이 있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으러 장물 시장으로 향했다.”(210쪽) 자전거 가게 주인들이 눈치 못 채게 조심스레 둘러 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천막을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내 절망에 가까워졌다. 그로부터 한참 뒤에 본 비토리오 데시카의 영화 〈자전거 도둑〉 속 그 아버지처럼.”(211쪽)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상가 한쪽에 아버지의 자전거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웃들과 자전거를 타고 온 도둑을 잡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도 버거워 보일 만큼 깡마른 다리에 얼굴은 온화하면서도 왠지 무례한 듯한 느낌을 주는 인상이었으며, 손에는 붉은 끈에 묶인 트렁크를” 든 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www.kci.go.kr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몸을 돌려 가게로 들어가는 것이었다.”(213쪽) 눈치를 챈 남자도 그냥 자기 물건만 챙겨 떠났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

이상 살펴본 자전거 관련 4가지 일화 중, 첫 번째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관련 이야기는 자전거 분실이 아니지만,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그렇지만 분실에 해당되는 나머지 일화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정도이지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런 면에서, 작품 제목 ‘도둑맞은 자전거’도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29]

“자전거 마니아”로서 “자격 미달의 ‘미치광이’인 내게는 자전거 자체보다 자전거가 품고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165쪽)고 말하는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사실 지금까지의 일화들은 아버지의 삶을 드러내기 위한 작은 편린들에 불과하다. 작가는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분산시킨 것이다.

이제 화자가 그려내는 아버지의 삶을 따라가 볼 차례이다. 화자는 가난하지만 나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버지와는 함께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결혼 전 인생은 신비한 소흑인 마을의 역사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다.”(26쪽) 결국 1993년 산업화 시대 타이베이의 상징이자 가족 생계의 터전이었던 중화상창이 철거되고, 다음날 아버지가 자전거와 함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가족들도 당연히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자전거에 대한 내 열정은 실종된 아버지에서 시작된 셈이다.”(58쪽) 아버지가 실종될 때 타고 갔던 그 행복표[30] 자전거만이 아버지의 목적지와 이유를

29) 어머니가 자전거로 뒤따라간 덕분에 다섯째 누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점은 수긍이 가지만, 자전거 분실의 결과에 따른 변화는 아니다. 나머지 두 사건은 자전거보다는 자녀들이 더 중요했다는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화로서의 의미 정도이다.

30) ‘행복표’는 단순히 자전거 브랜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메타포였다. “가끔 행복표의 성공이 상표의 이름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막 전쟁에서 벗어난 이 작은 섬은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다.” 78쪽.

www.kci.go.kr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화자는 취미로 고물 자전거를 구입해 수리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여정에 빠져든다. “모든 감정을 해수면 아래에 두었다가 아주 가끔 잠망경을 내미는”(209쪽) 아버지는 “소년공으로 일본에 가서 전투기 만드는 일을 했다.”(214쪽) 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 중 그래도 나름 아버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묘사는 ‘캉후’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 사람이 가진 기교를 아버지는 ‘캉후’라는 대만어로 통칭했다. 어릴 적에는 그게 ‘쿵후’와 같은 말인 줄 알았다. 아버지는 ‘캉후’를 가진 사람이 이를 악물고 연마하는 시기를 거쳐야만 진정한 장인이 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248(205)
> …(중략)…
> 아버지는 탕 선생에게 ‘캉후’를 배웠다고 했다. 원단 고르는 것도 캉후, 치수 재는 것도 캉후, 양복 깃 바느질하는 것도 캉후, 시침질하는 것도 캉후, 다리미로 선 잡는 것도 캉후, 심지어 옷단에 단추를 다는 것도 기술이 아닌 캉후라고 했다. 캉후가 기술과 다른 점이 뭘까? 아버지는 만들어낸 물건에 ‘줏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다림질로 예를 들곤 했다. 손님 몸에 착 붙는 양복을 짓기 위해서는 양복을 만들 때 다리미로 선을 잘 잡아주어야 하는 데 그때 다리미의 온도와 습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다리미로 옷을 누르는 힘을 조절하는 것이다. 다리미를 밀면서 손님의 치수를 잴 때 느꼈던 손의 감촉을 떠올리며 그 느낌을 옷감에 재현해내야 한다. … (후략)… (248쪽)

비록 가난했지만,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지조를 지킨 생활인의 모습이다. 화자는 자전거를 실마리 삼아 아버지를 찾는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된다. 고물상 아부(阿布)를 만나 고물 수집과 삶의 다양한 의미들을 배우고, 이메일로 교류한 사비나의 소설에서 ‘나비 콜라주’와 나비 채집 산업을 되새긴다. 또한 쩌우족(鄒族) 출신의 종군 사진작가 압바스(阿巴斯, 甘少奇)를 만나서는 사진 예술을 접하고, 압바스의 아버지 바쑤야(巴蘇亞, 高天進, 森勝雄)의 육성 녹음을 통해 태평양전쟁의 실상을 엿본다. 그리고 스즈코(林秋美, 靜子)를 만나 한편으로는 동물원의 동물들 관련된 비화를 들으면서, 또

www.kci.go.kr

한편으로는 사라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교류했던 무 분대장(穆班長)의 전쟁 기억과 그 이후 고통스러운 삶에 관한 얘기를 접한다. 스즈코의 얘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가오슝 해변가에서 산책을 하던 중 무 분대장을 만나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전쟁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어요.”(358쪽)[31] 문제는 소설에서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이런 정도밖에 없다 보니, 아버지가 왜 집을 떠나 실종되었는지 독자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소설 속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아버지가 사라지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수면의 항로(睡眠的航線)』라는 소설을 썼다”(59쪽)라고 하며, 자신의 실제 작품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도둑맞은 자전거』를 창작하게 된 것은 『수면의 항로』를 읽은 독자가 자전거 행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59~63쪽 참조) 『수면의 항로』에서 『도둑맞은 자전거』의 아버지의 화신으로 보이는 인물은 ‘싼랑(三郎)’이다. 일제의 식민 교육을 받은 少年工 ‘싼랑’은 일본의 군수공장에 자원해 복무하고, 일본의 패망 후에는 전승국의 일원이 되었지만, 국민당 지배하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그리고 자전거와 함께 사라진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의 혼란스러운 경험과 이후 행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다.

>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친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한 살육은 너무나 작고 단편적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살육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숙련된 기술, 진지함, 일본인으로 인정받는 조건인 증명서에 대한 열망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쟁을 지속해 나가는 국가를 돕고, 살육에 참여했다.[32]

31)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스즈코는 이렇게 평가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선생의 아버님과 무 분대장이 항구의 긴 벤치에 앉아, 각자 떠나지 못한 채 맴돌고 있는 시간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줬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선생의 아버님이 무 분대장에게 자전거를 준 이유이기도 할 거고요. 음…… 나는 청 선생의 아버님이 일부러 자전거를 그에게 남기고 간 거라고 생각해요.” 424쪽.

www.kci.go.kr

이는 두 작품에서 작가가 지향하는 주지가 전쟁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33]

4. 타이완 원주민의 전쟁 기억

작품에서 작가가 문학적으로 구성한 전쟁 관련 이야기는 미군의 타이완 폭격과 미얀마 정글에서의 전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서술 주체는 압바스 부자와 문 분대장, 코끼리이다.

압바스가 화자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미군의 폭격과 관련된 것이다. 압바스는 군복무 시절 얼가오촌이라는 권촌에서, 알락할미새를 어느 일본 공군 학도병의 화신이라고 믿고 함께 살아가는 라오쩌우라는 인물을 만난다. 두 사람은 자전거를 매개로 친하게 지내고, 이후 압바스는 그에게 이끌려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소설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며. 이야기를 시작된다.

> 제2가오슝해군항공대가 주둔했던 강산공항이 바로 압바스가 복무 중인 방공포 부대가 지키는 공군사관학교공항이었다. 전쟁 시기에 유명했던, 나중엔 공군항공기술학교가 된 61해군항공창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전쟁 막바지였을 때 이 두 곳은 필리핀과 중국에서 출격한 미군 폭격기의 주요 폭격 지점이었다. 특히 항공창은 미국이 일본 본토 외에 가장 주시하는 군사 목표였다. 당시 항공창이 집중 폭격을 당해 근방에 있

32) 吳明益, 『睡眠的航線』, 台北: 二魚文化, 2007, 292쪽. 『수면의 항로』의 내용에 대해서는 劉亮雅의 「近期小說對日治時期的重新記憶：以『鴛鴦春膳』與『睡眠的航線』中的反記憶、認同與混雜爲例」(『清華學報』 新45卷 第3期. 2015.9)가 푸코의 '反記憶(counter-memory)'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33) 작가는 스즈코의 입을 빌려, 화자의 아버지가 떠난 이유를 이렇게 제시한다. "내 생각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남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게 돼요. 청 선생의 아버님이 결국 어떤 선택을 내렸든 그건 그 상처가 자신에게서 끝나길 원했기 때문일 거예요." 425쪽.

www.kci.go.kr

> 던 목조건물까지 모두 타버려 시멘트 건물만 남아 있었다. 벽에 파편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집도 있었다. …(후략)… (89쪽)

태평양 전쟁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됨으로써, 많은 희생자가 있었다는 암시이다.[34] 곧 제대할 무렵이 되자 라오쩌우는 알락할미새가 알려준 곳에 같이 가보자는 부탁을 했다. 한 때 초등학교, 요양원이었다가 지금은 버려진 건물의 지하실이었다. 그곳에는 "수초가 잔뜩 떠 있는 탁한 물이 입구까지 차올라 있었다."(103쪽) 준비해 간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모험을 시작한 두 사람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나타났다.

> 게다가 몸집이 사람만 한 물고기였다. 그것들의 지느러미와 꼬리가 쉬지 않고 움직여 무수한 기포를 만들어냈다(애초 기포는 물고기가 만들어낸 것이었구나, 압바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 …(전략)…'사람'들이 물고기처럼 몸을 유연하게 흔들며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벌거벗고 있었고 간혹 한두 사람만 아주 작은 천을 걸치고 있었다. 반라 또는 전라의 '어인魚人'(그래, 인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어인이라고 하는 게 낫겠어, 라고 압바스는 생각했다)들은 손에 각종 무기를 들고 있었다.
> 모두 무기가 분명했다. 압바스는 대학 시절 무술 동아리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들 손에 들린 무기 중에서 청룡언월도, 삼지창, 갈고리, 달도韃刀, 패도牌刀, 쌍도, 제미곤齊眉棍, 계곤戒棍, 도끼, 채찍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다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형태의 무기였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중 일부가 괭이, 낫, 삽, 갈퀴 같은 농기구라는 사실이었다**. …(중략)… 그들의 살갗이 뭔가에 베인 듯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지만 선홍색 속살만 드러나 있을 뿐 피는 흐르지 않았다. 어떤 상처는 회백색 근육과 뼈가 드러나 보일 만큼 컸다.
> …(전략)…온전한 어인은 없었다. 팔이 없어 다리로만 자맥질을 하기도

34) 작품에서는 1945년 타이베이 공습을 이렇게 묘사한다. "쇼와 20년 5월 말, 타이베이에 대대적인 공습이 닥쳤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포탄이 정부기관, 타이베이공원, 타이베이역, 절, 성당 위로 떨어지고, 범죄자, 양민, 군인 등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344쪽

www.kci.go.kr

> 하고, 다리가 없어 팔로만 물을 젓기도 하고, 또 어떤 어인은 반쪽만 남은 몸으로 빙빙 돌기만 했다. …(후략)… (109~110쪽, 강조 인용자)

이 지역이 "미군 폭격기의 주요 폭격 지점"임을 감안하면, '어인'들의 모습에서 폭격의 참상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서술은 환상 속에 현실을 담아내는 매직 리얼리즘의 기법[35]을 사용하면서, 숨은그림찾기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는 곧이어 "며칠 뒤 압바스는 지도를 펼쳐놓고 그들이 누워 있던 뭍이 아공뎬 강 왼쪽 기슭이며 얼가오촌에서 직선거리로 대략 2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했다"(113쪽)는 서술을 통해 힌트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한 부분은 '아공뎬 대학살사건'[36]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사에 관심 있는 타이완 독자들이 아니면 쉽게 파악하기 힘들게 묘사되어 있다. 결국 작가는 후반부에서 압바스의 편지 형식으로 두 사건의 참혹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 막 식민 통치가 시작됐을 때 일본인들이 일본에 저항하는 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근방 몇몇 마을 청년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어요. 열여섯 살 이상 젊은 남자들을 집합시켜놓고 찌르고 베어 죽인 뒤 시신을 불태웠어요. 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절에 있는 법기를 무기 삼아 저항했지만, 힘없는 저항이자 구슬픈 울부짖음에 불과했죠.
> 1944년 미국이 무기 공장과 일본 항공대가 모여 있는 강산에 대공습을

35) 인용문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환상을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품은 잠수 시계를 찬 압바스가 계속 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침 8시 6분에 들어가서, 어인들을 만날 때 시계가 고장난 듯 8시 28분 29초에 멈춰 있었다. 뭍으로 기어 올라왔을 때 시간은 오후 5시 30분 20초였다.(106~112쪽) 두 사람이 사용한 산소통은 "기본형 스테인리스 100형 산소통으로 사용시간이 한 시간을 넘을 수 없었다."(112쪽) 이렇게 구체적 숫자(객관적 자료)를 통해 과장이나 초현실적 묘사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하는 전략은 매직 리얼리즘의 중요한 서사 기법 중의 하나이다. 이에 관해서는 전용갑의 「신환상성, 마술적 사실주의, 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 장르 비교를 위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제33권 1호(2014.2), 78~80쪽 참조.

36) '阿公店大虐殺事件'은 1898년 일본이 타이완 중남부 항일군을 토벌한다는 명목하에 수천 명을 잔혹하게 살상하고 가옥을 방화한 사건이다. 아공뎬 지역에서 가장 잔혹했다고 한다.

www.kci.go.kr

> 감행했어요. B-29가 '일본해군 제61항공장'을 주요 목표로 650톤의 폭약을 투하해 강산을 송두리째 폐허로 만들었어요. …(후략)… (439~440쪽)

압바스의 뇌리에 깊게 자리했던 충격적 경험은 몰랐던 역사적 맥락을 만나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게 한 '중층 기술'의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위의 두 사건은 모두 외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과 살육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던——사람들이 망각했거나 몰랐던—— 타이완의 슬픈 과거가 하나의 사건, 하나의 외부 세력이 아니라 복수의 사건, 복수의 침입자들이라는 점을 강하게 환기시켜 준다. 압바스는 이어지는 편지에서 그 지하실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며, 종군 사진작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반성을 구구절절 기술한다. 물론 이 반성에는 아버지 바쑤야가 겪었던 전투 지역을 답사하면서 얻어진 것이기도 하다.

바쑤야의 전쟁 참전기[37]는 그가 남긴 육성 녹음 테이프[38]를 통해 기술된다.

바쑤야는 "고사족[39]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인이 되는 것"(258~259)이라며, '쇼와 17년(1942)' "육군 특별지원병 시험에 응시했다가" 필기시험에 떨어지고, 군무원으로 징용되어, 말레이반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거쳐 미얀마 주둔 일본군 탄약 보급대에 배속되었다.(257~258쪽) 그는 코끼리 50마리를 돌보며 미얀마의 카렌족 조련사 마웅 비네이를 만난다. 두 사람 다 주류 에스닉의 핍박을 받는 소수자 집단 출신이고, 각자 자기들만의 야생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세상 만물에 영혼이 있다고"(263쪽) 믿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전쟁에서

37) 소설은 바쑤야가 참전한 전투 외에도, 일본의 '銀輪부대'가 말레이반도에서 보여준 활약상 등 실제 전쟁사에 많은 편폭을 할애하고 있지만, 소설의 서사를 고찰하는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38)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 바쑤야가 사건을 서술할 때는 일본어로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거나 풍경을 묘사할 때는 쩌우족 언어로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73쪽.

39) '高砂族'은 일제가 1930년 '霧社事件' 이후 타이완 산지 원주민들을 지칭하던 용어로, '타카사고족'이라고 표기해야 할 것이다.

www.kci.go.kr

보기 힘든 우정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전황이 불리해지고, 밀림에 갇힌 해골들이 "자신들의 피에피야(혼백)를 어떤 길로 돌려보내야 고향을 잘 찾아갈지 궁리"(269쪽)하는 "절망적인 죽음의 숲"에서 "중국군의 포로가 되는 대신 밀림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270) 밀림에서 고통스럽게 버티던 중 비네이가 총상을 입는다.

> "날 죽이고 묻어줘. 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으면 까마귀가 소리를 듣고 날아와 내 골을 쪼아 먹을 거야. 그러면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게 돼." 비네이가 말했다.
> …(중략)…
> 눈을 뜨니 땅콩만 한 개미와 콧물 같은 말거머리가 비네이의 몸에 기어올라 새카맣게 붙어 있었다. 남자 손바닥만 한 딱정벌레 한 마리도 있었다. 나무 구멍 밖에서 천둥 같은 빗소리가 들리는데도 딱정벌레가 비네이의 살점을 씹어 먹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울부짖으며 그 악령들을 떼어냈다. 그의 몸에 아직은 영혼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믿었다. 개미가 내 몸으로 기어 올라와 나를 깨물며 어서 비네이의 영혼을 쫓아내라고 재촉했다. 개미들이 한꺼번에 외치자 누가 내 귀를 바늘로 찔러대는 것 같았다. 개미들이 말했다. "찔러. 어서 찔러. 편히 잠들게 해줘." 나는 그 말대로 칼을 집어 들어 비네이의 왼쪽 가슴에 꽂았다. (272~273쪽)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들든 동료의 가슴에 칼을 꽂아야만 했던 경험은 이후 바쑤야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의 삶을 조금씩 파괴해 간다.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지만,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정의 불화를 겪는다. 아들 "압바스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마치 사진 속 청년이 자신과 무관한 낯선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다."(170쪽) 전쟁에서 왼쪽 귀의 청력을 잃고 밤마다 이명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어느 날 음주로 아내와 싸우다가 젓가락으로 오른쪽 귀를 찌르는 자해까지 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바쑤야의 일화는 '타카사고 의용대(高砂義勇隊)'[40]의 아픈 역사를 복원한

www.kci.go.kr

것이다.[41] 작가는 바쑤야 육성 녹음 테이프로, 당시 황민화 교육으로 원주민들이 일제에 동화되어 갔던 정황과 원주민들이 일본군에게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장면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 (175~183쪽 참조)

한편, 중국 쓰촨 지역의 고아 출신인 무 분대장은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입대(417쪽 참조)하고, 중국군으로서 바쑤야의 반대편에서 겪은 치열했던 전투로 인한 상처 때문에 고생스러운 기억이 몰려오면 나무에 '숨는' 버릇을 갖고 있다. 무지막지하게 큰 용수나무를 요새화한 덕분에 지옥 같은 전투에서도 살아남고, 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을 교감하는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때문이었다. "북미얀마 밀림에서 운명은 양쪽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잔인했다."(418~424 참조)

소설은 '9장 림보'에서는 코끼리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느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42] 그리고 같은 전투 이야기를 코끼리의 시선으로 다시 보여준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사람들의 꿈 냄새를 맡곤 한다(381~382)는 영물로서의 코끼리 모습을 그려낸다.

---

40) 용맹한 타이완 원주민들이 밀림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한다——『워리어스 레인보우(賽德克・巴萊)』에 잘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한 일제가 태평양 전쟁에 동원한 의용군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비극은 일본 패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征憶 : 高砂義勇隊與國共戰爭時期原住民軍人口述歷史』(蔡金鼎主編, 新北: 原住民族委員會, 2015, 4쪽)에 따르면, 그들은 국공내전은 물론이고, 한국전쟁과 '제2차 타이완 해협 위기'(1985~1979)라 칭해지는 진먼 폭격전에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41) 劉亮雅는 젊은 세대가 신역사주의로 많은 역사를 구축하고 관방의 역사를 전복하면서 주류사회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한다. (「失落與追尋 : 吳明益『單車失竊記』中的歷史拼圖」, 『中外文學』 49卷2期(2020.6), 48쪽) 『수면의 항로』의 소년공과 『도둑맞은 자전거』의 '타카사고 의용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관점이다.

42) 『도둑맞은 자전거』가 동물들을 은유적 기능을 넘어선 자율적인 개체로 간주한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Catherine Diamond, "Tiger in the Garden, Elephant at the Gate: Three Zoonimal Narratives", *Tamkang Review* 51卷2期(2021.6). 邵毓娟은 '인간과 같은 시공간에 존재했던 비인간적 주체와 무생물'까지 역사의 시야를 확장하여, 말을 할 수 없었던 주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한다. 「牽連的主體 : 試析『單車失竊記』中的微關係想像與感性體制」, 『中外文學』 50卷3期(2021.9), 106쪽.

www.kci.go.kr

> 그날 저녁에도 코끼리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병사의 머리 위로 코를 뻗었다. 그의 머릿속에 거대한 나무가 나타났다. 가지가 무성하게 뻗친 나무는 수관의 둘레가 코끼리 걸음으로 5백보는 족히 되어 보이고, 사방으로 뻗은 공기뿌리 중 굵은 것은 땅을 뚫고 들어가 또 다른 나무둥치가 되어 코끼리조차 흔들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나무를 지탱했다.
> …(중략)…
> 코끼리는 나무 위를 떠다니며 병사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나무와 초원, 숲의 교전을 내려다보았다. 코끼리는 코로 나뭇잎 사이를 벌려 가지에 엎드려 있는 병사들을 찾았다. …(중략)… 병사들은 덩굴을 잘라 물을 빨아 먹거나, 파초 뿌리와 대나무를 씹어 먹거나, 간절한 눈으로 하늘을 향해 비를 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손이 잘리고, 어떤 이들은 각반 아래로 아무것도 없었으며, 얼마 전 한쪽 눈을 잃고 기울어진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병사와 치아의 일부를 잃거나 몸의 어딘가에 뼈가 부러진 병사도 있었다. 그들 몸에서 흘러나온 검은 피가 넘쳐흐른 타액처럼 더러운 군복을 물들였다. 피를 머금은 풀밭은 촉촉하게 윤기가 돌았다. 단지 색이 그리 푸르지 않을 뿐. 한 병사가 수풀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지만, 스스로도 우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 한 병사가 코끼리 코에 벌어진 나뭇잎 사이로 위치가 드러나 총에 맞았다. 그가 외마디 신음과 함께 떨어지자 나무 밑에서 이때를 기다리고 있던 지렁이, 쇠똥구리, 까마귀가 우르르 모여들었다.
> 꿈 바깥의 세상과 달리 그것들은 뼛조각까지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 유일하게 먹지 않는 건 눈알이었다. 그 때문에 나무 밑과 풀밭 위에 눈알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뒹굴고 있었다. 개망초 속에서 진주처럼 반짝이는 눈알 위로 밀림이 볼록한 부채꼴로 비쳤다. 코끼리가 코를 뻗어 눈알들을 후루룩 입에 담았다. 설명하기 힘든 맛이었다. 동공의 뿌리와 가까운 곳은 신경이 모여 대뇌와 연결되기 때문에 병사들의 뇌에 들어 있는 기억에 따라 맛이 달랐다. (382~383쪽)

무 분대장, 전투에 참가 병사들의 참상, 총상을 입은 비네이가 사망하는 모습을 매직 리얼리즘으로 묘사하고 있다. 9장 전체가 독특한 서사를 보여주지만, 이 부분이 작품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43]

---

43) 陳芷凡은 타이완 원주민의 애니미즘을 서사 전략으로 삼아 인간 중심주의의 전쟁을 비판했다고 지적한다. 「戰爭與集體暴力——高砂義勇隊形象的文學再現與建構」, 『臺灣文學

www.kci.go.kr

참혹했던 전투를 세 서술자[44]를 통해 중층 기술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인간들이지만 무기력하기만 한 인간 존재는 생존을 위해서 식물・동물로 대표되는 자연과 교감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전쟁 기억들은 기본적으로 비주류 혹은 소수자들——한족에 대비되는 원주민, 다수의 본성인에 대비되는 외성인, 인간에 대비되는 동물——의 과거사 기억이다. 신역사주의가 바로 이런 소수자 집단의 역사 서사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지배적 서사를 해체하고, "그 이면에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껄끄러운 이야기들을 폭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45]

4. 맺음말

본 논문은 작가가 내세우는 신역사주의를 중심으로, 『도둑맞은 자전거』의 기본적인 서사인 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전쟁 서사——특히, '타카사고 의용대'——의 의미들을 추적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작가의 서사 기교와 생태 의식이 아주 돋보였지만, 신분적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이전에 접했던 타이완 작품들은 과거사 기술에서 신분적 정체성에 따른 갈등을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는데, 『도둑맞은 자전거』에서는 오히려 일본인・

硏究學報』 26期(2018.4), 178쪽.

44) 이것은 영화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羅生門)』(원작: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소설 「덤불 속」)이 화자를 달리하며, 한 사건의 진실에 대한 인식론적 상대성과 객관적 진실에 대한 회의를 보여준 방식과는 결을 달리한다. 조한욱(앞의 책)은 역사학계의 '신문화사'에 대해, "역사적인 자료를 읽고 해석함에 있어,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등의 방법에 의존하여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14쪽)이라며, 클리포드 기어츠의 '중층 기술'을 응용하여, '두껍게 읽기'의 예로서 로버트 단턴의 《고양이 대학살》을 분석하고, '다르게 읽기'의 사례를 보여준다(2장과 3장 참조). 본문에서 말하는 서술자의 변화는 바로 이 '두껍게 읽기'와 '다르게 읽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상징에 대한 해석, 기존의 관점과 다른 맥락에서 역사 읽기, 즉 인간의 전쟁사가 아니라, 동식물이 보는 전쟁사 기술을 말한다.

45) 로이스 타이슨, 앞의 책, 598~599쪽.

www.kci.go.kr

원주민・본성인・외성인들 사이에 갈등보다는 우정과 가족 같은 친밀감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물론 '2・28' 시기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화자의 아버지, 바쑤야, 시역소(시청)에 근무했던 스즈코의 아버지——들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고, 심지어 실종되는 모습[46]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은 신분적 정체성의 갈등으로 묘사했다기보다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과거의 갈등들이 많이 해소된 측면도 있겠지만, 작가나 현재 타이완 사회의 주된 담론들이 다양한 역사 읽기는 하되, 내부적 화해를 추구하는 것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화자와 압바스가 아버지의 과거 흔적을 추적해 간다는 설정은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식민 지배와 전쟁의 참화에 살아남았지만, 고향을 떠나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고, 산업화 물결에 허우적거리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가는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에게 이제는 우리 세대가 이해한다는 위로이자 만가이다.

작품은 또한 화자의 가족사를 어머니 혈통으로 그려내고, 아버지 家系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게다가 아버지는 타이완이라는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는 존재로 묘사한다. 그런 측면에서, 타이완의 대지를 굳건히 지켜온 어머니를 타이완 본토성에 대한 메타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버지는 타이완에 내재된 타자의 시선일 것이다.

작가 우밍이의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최근 타이완 사회 문화적 담론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의의가 있다. 작품에 내재된 여러 유익한 주제들이 후속 연구에서 제대로 드러나길 기대한다.

46) 스즈코는 아버지가 실종되고, 며칠 후 단수이 강에 팔 다리가 묶인 시체들이 떠올랐을 때, 그 시체들 속에서 아버지를 확인하지 않을 것을 자책한다. 그 후 그녀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다. 345~347쪽 참조.

www.kci.go.kr

參考文獻

Catherine Diamond, “Tiger in the Garden, Elephant at the Gate: Three Zoonimal Narratives”, *Tamkang Review* 51卷2期(2021.06)

Harold Aram Veeser, ed, *The New Historicism* (New York: Routledge, 1989.

Lin-chin Tsai, “Ecological Redistribution and Historical Sustainability in Wu Ming-yi’s Two Novels”, *Tamkang Review* 50.1 (December 2019), p29.

김준형 외,『한국사론 32: 지역사 연구의 이론과 실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1.

김혜니,『외재적 비평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푸른사상사, 2005.

로이스 타이슨, 윤동구 역,『비평이론의 모든 것』, 서울: 앨피, 2014.

劉亮雅, 「失落與追尋：吳明益『單車失竊記』中的歷史拼圖」, 『中外文學』 49卷2期(2020.6).

史書美,『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 臺北: 聯經, 2017.

邵毓娟, 「牽連的主體：試析『單車失竊記』中的微關係想像與感性體制」, 『中外文學』 50卷3期(2021.9).

스수메이, 이정구 譯, 「디아스포라에 대한 반대: 문화 생산 장소로서의 사이노폰」,『중국사회과학논총』 3권 2호(2021.08)

스수메이, 조영현 譯, 「사이노폰의 개념」, 韓國中國現代文學學會,『中國現代文學』 第95號(2020.10)

영미문학연구회 편,『영미문학의 길잡이 2: 미국문학과 비평이론』, 파주: ㈜창비, 2007.

吳明益,『單車失竊記』, 台北: 麥田, 2022.

吳明益,『睡眠的航線』, 台北: 二魚文化, 2007

우밍이, 허유영 譯,『나비탐미기』, 서울: 가디언, 2016.

우밍이, 허유영 譯,『도둑맞은 자전거』, 파주: 김영사, 2023.

이명재,『문학비평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1997,

이영현, 「기후변화, 플라스틱, 몸: 2021년과『복안을 가진 남자』를 중심으로」,

www.kci.go.kr

『문학과환경』 제20권 제4호, 2021.
전용갑, 「신환상성, 마술적 사실주의, 아메리카의 경이로운 현실 장르비교를 위한 이론적 고찰」,『중남미연구』 제33권 1호(2014.2)
정정호, 「미국의 “신역사주의” 비평: 담론으로서 “역사”의 귀환」,『문예운동』, 통권 제142호(2019.5)
조영현, 「리앙(李昂)의『미로의 정원(迷園)』과 反 디아스포라」, 中國語文論譯學會,『中國語文論譯叢刊』第48輯(2021.1)
조영현, 「샤만 란보안의『바다의 순례자』와 원주민성」, 中國語文論譯學會,『中國語文論譯叢刊』第52輯(2023.1)
조한욱,『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2020
陳芷凡, 「戰爭與集體暴力——高砂義勇隊形象的文學再現與建構」,『臺灣文學研究學報』26期(2018.4)
蔡金鼎主編,『征憶：高砂義勇隊與國共戰爭時期原住民軍人口述歷史』, 新北: 原住民族委員會, 2015.
최호근, 「역사주의와 신역사주의」,『韓國史學史學報』8호(2003.9)
클리퍼드 기어츠, 문옥표 역,『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글방, 1999.
키스 젠킨스, 최용찬 역,『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서울: 혜안, 2002.
프랭크 렌트리키아 외, 김옥수 역,『신역사주의론』, 서울: 한신문화사, 2002.
헤이든 화이트, 천형균 옮김,『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메타역사』, 서울: 文學과知性社, 1991.

www.kci.go.kr

Abstract

Wu Ming-Yi's *The Stolen Bicycle* and the Reconstruction of Taiwanese History

Cho, Young Hyun

This paper takes *The Stolen Bicycle* by Taiwanese author Wu Ming-Yi as the object of study. The novel, which has "New Historicism" at the forefront, depicts the process of a narrator searching for a bicycle that disappeared with her father's disappearance one day, while at the same time reshaping the history of Taiwan in the 20th century. The novel first introduces the anecdotes of families involved with bicycles, and further describes Pacific War history, Taiwan's bicycle development history, zoo history, and butterfly craft history, and more. In particular, in describing the history of the war, the author recalls the forgotten "Takasago volunteer army" of indigenous Taiwanese into Taiwanese history. This paper examines instances of "thick description" under the umbrella of "New-Historicism" in which two themes - family history, which forms the basic history of the novel, and personal war memories, which are embodied in the author's extraordinary skill as a writer.

Key words : Wu Ming-yi, *The Stolen Bicycle*, New Historicism, thick description, Sinophone, Magic Realism, Taiwaneseness, Microhistory

투 고 일 : 2024. 1. 10. / 심 사 일 : 2024. 1. 15.~ 2024. 2. 15. / 게재확정일 : 2024. 2. 20.

www.kci.go.kr